

국제유가 급등하면 경제 직격탄

배럴당 20달러 안정 ...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 9억달러 악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4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추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가 크게 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세계 및 국내경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9월11일 급등했다 12일 진정됐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13일과 14일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이 가장 많이 들여오는 Dubai유는 9월14일 배럴당 26.83달러로 거래를 끝내 미국 테러사건 직전인 10일보다 2달러 가까이 올랐다. 8월 평균 배럴당 24.53달러보다 배럴당 4달러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14일 한때 배럴당 31달러까지 치솟는 등 초강세를 보이다 29.54달러로 마감했다. 또 11-12일 거래가 중단됐던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도 13일 배럴당 28.65달러로 오른데 이어 14일에는 29.90달러로 30달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면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올라 국제 석유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석유 소비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어 유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안팎을 보이면서 요동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무언의 압력에 OPEC이 전혀 기를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감소를 생산쿼터 감축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동국가들의 착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이 아프간 공격을 이라크 등으로 확대하게 되면 아랍권이 대단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이 확전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가급등은 미국경기 침체와 함께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2대 해외악재로 꼽히고 있다. 국제수지 악화와 대외 경쟁력 악화, 물가상승 등을 유발하면서 오일쇼크 때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도입 평균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만도 약 9억달러 악화된다.

원유 수입동향

(단위: 달러/bbl, 1000bbl, 100만달러, %)

구 분	2000	2001.1/4	2/4	1-6	7	8
Dubai유	26.18	23.70	25.15	24.43	23.46	24.53
도입단가	28.22	25.44	26.47	25.95	27.18	25.28
도입물량	893,942	249,393	207,447	456,840	57,256	61,891
수입액	25,216	6,334	5,495	11,828	1,556	1,566
증감률	(70.6)	(3.5)	(-2.0)	(0.9)	(-33.8)	(-11.5)

2001년 8월 원유 수입은 도입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도입단가가 하락해 수입액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11.5% 감소했다. 원유 도입단가는 2000년 8월 배럴당 28.79달러에서 2001년 8월 25.28달러로 12.2% 하락했고, 도입물량은 6149만배럴에서 6189만배럴로 0.7% 증가해 수입액은 17억6900만달러에서 15억6600만달러로 11.5%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나프타 도입가격 상승 및 독립 석유수입상의 영업활동으로 21.9% 증가했으나 LNG 및 LPG 수입은 각각 19.7%, 41.4% 감소했다. 석탄은 발전소 분할에 대비한 유연탄 재고 증가 및 도입가격 상승으로 21.1% 증가했다.